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시험(2024. 6. 1.시험)

「행정법」 총평

- 이패스행정사 박이준-

수험생 여러분. 시험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일 난이도 [상]인 문제의 판단기준을 “상당수의 응시자가 시험시간에 머리를 싸매고 골똥하게 정답을 찾아야 했던 문제”라고 정의내린다면, 이번 행정법 시험 문제 가운데에는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시험이 어려웠다고 하실 분도 있을 것이나,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거나 학습 시간 확보가 어려워 행정법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분들일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기본이론 학습을 충분히 하고 문제집을 성실하게 풀어보았다”라면 모두 정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래와 같이 평가를 해보니, [난이도 \[중\] 10문항](#), [난이도 \[하\] 15문항](#)으로 분류됩니다. 한 마디로 매우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의 구성 면에 있어서는 먼저, [\[판례\] 문제가 11문항](#), [\[법률\] 문제가 15문항](#)으로 작년의 구성비율과 비슷합니다. 그동안 행정사 행정법도 다른 시험들과 비슷하게 판례의 비중이 압도적이었으나, 작년 2023년 시험에서 갑자기 법률 문제가 급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향후에도 지속될지 관심사였는데 역시 2024년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행정사 행정법 시험은 법조문을 중시하는 과목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시험에 대비하실 분들은 이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영역에서 골고루 출제되었으며, [\[총론\]에서 18문항](#), [\[각론\]에서 7문항](#)이 출제되었는바 이는 예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각론]의 출제비율이 다른 시험들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제가 강의과정에서 늘 말씀드려 왔는데, 행정법은 고득점이 가능하여 전체 합격점을 용이하게 보장하는 견인차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출제방식의 큰 변화는 없으므로 향후 1차시험에 도전하는 분들은 기본교재와 문제집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성실하게 학습하시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래는 각 문항별로 간단히 분석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항별 분석

26번 [통치행위]  판례, 정답 ⑤, 난이도 하

평범한 판례들로서 무난. * 「2024 객관식 행정사 행정법」, 박이준, p.15

27번 [공법관계]  판례, 정답 ⑤, 난이도 중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에 착각하지 않았어야 함. 정답 5번 마사회 기수 면허 취소소송은 사법관계로서 정답 찾는 데는 어렵지 않음. * 「2024 객관식 행정사 행정법」, 박이준, p.466

28번 [공법상 계약] ☞ 판례, 정답 ⑤, 난이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공공계약이 사법(私法)계약인지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나, 다른 지문들이 평범하여 정답을 맞힐 수 있음 * 「2024 객관식 행정사 행정법」, 박이준, p.204

29번 [행정규칙] ☞ 판례, 정답 ②, 난이도 하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므로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다고 적법성이 보장되지도 않고, 따르지 않는다고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님 * 「2024 객관식 행정사 행정법」, 박이준, p.105

30번 [행정행위의 효력] ☞ 판례, 정답 ④, 난이도 중

지문 ④는 불가쟁력으로서, 불가쟁력은 기판력이 아님을 안다면 정답을 맞힐 수 있음 * 「2024 객관식 행정사 행정법」, 박이준, p.159

31번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 법령, 정답 ③, 난이도 중

위법과 적법, 과거와 장래의 관계, 신뢰보호의 법리를 정확히 알아야 해서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나 지문 ③에서 수익적 처분에는 상대방의 신뢰이익이 있으므로 취소하더라도 장래효에 미친다는 점에서 정답을 맞힐 수 있음 * 「2024 객관식 행정사 행정법」, 박이준, p.193

32번 [행정행위의 부관] ☞ 판례, 정답 ①, 난이도 하

기속행위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부관이 가능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음 * 「2024 객관식 행정사 행정법」, 박이준, p.141

33번 [인허가 의제] ☞ 법령, 정답 ④, 난이도 중

사례형이라고 무조건 어려운 문제가 아님. ④에 관해서는,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행정기본법 제25조 제1항). 이것이 눈에 띄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문들은 평범해서 정답을 맞힐 수 있음 * 「2024 객관식 행정사 행정법」, 박이준, p.205

34번 [행정절차법] ☞ 법령, 정답 ④, 난이도 하

행정절차법 법령을 공부했다면 무난하게 틀린 것을 찾아낼 수 있음 * 「2024 행정사 행정법」, 박이준, p.256

35번 [정보공개법] ☞ 법령, 정답 ①, 난이도 하

①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의 맨 마지막에 있었다는 것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음 * 「2024 객관식 행정사 행정법」, 박이준, p.274

36번 [청문] ☞ 법령, 정답 ③, 난이도 하

직권심리주의가 가미되어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음 * 「2024 객관식 행정사 행정법」, 박이준, p.249

37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법령, 정답 ②, 난이도 하

너무나 많이 출제되었던 법령 내용으로서 당연히 맞힐 수 있음 * 「2024 객관식 행정사 행정법」, 박이준, p.295

38번 [직접강제] ☞ 법령, 정답 ③, 난이도 하
직접강제를 의무를 부과한 경우이고, 즉시강제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강의시간에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강조했음)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음 * 「2024 객관식 행정사 행정법」, 박이준, p.329

39번 [국가배상법] ☞ 법령, 정답 ②, 난이도 하
고의, 중과실과 경과실로 나누어 구상권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매우 기본적 사항임 * 「2024 객관식 행정사 행정법」, 박이준, p.359

40번 [무효확인소송] ☞ 판례, 정답 ⑤, 난이도 중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형식적으로는 취소소송이어서 제소기간이 적용된다는 판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정답을 찾는데 무리가 없음 * 「2024 객관식 행정사 행정법」, 박이준, p.168

41번 [집행정지] ☞ 법령, 정답 ②, 난이도 중
집행정지와 관련한 중요한 법률 내용과 판례가 등장해서 정답을 맞히는 데에 지장이 없음 * 「2024 객관식 행정사 행정법」, 박이준, p.487

42번 [직접처분, 간접강제] ☞ 법령, 정답 ④, 난이도 중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맞힐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성실하게 공부했으면 맞힐 수 있는 문제였음. 정답인 ④에서 간접강제와 관련된 판례가 교재에 있다는 이야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라는 점임 * 「2024 행정사 행정법」, 박이준, p.670

43번 [일부취소재결의 경우 대상적격과 제소기간 기산점] ☞ 판례, 정답 ①, 난이도 중
어렵지 않은 사례형임. 워낙 강조되었던 중요한 사항이라 정답을 찾을 수 있음 * 「2024 객관식 행정사 행정법」, 박이준, p.468

44번 [공무원의 신분관계] ☞ 판례, 정답 ①, 난이도 하
임용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행위가 당연무효라는 점은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임 * 「2024 객관식 행정사 행정법」, 박이준, p.572

45번 [권한의 대리위임] ☞ 법령, 정답 ③, 난이도 중
기관위임사무를 재위임할 때는 조례가 아닌 규칙에 의한다는 것도 강조되었던 내용임. 설령 이것이 생각나지 않았더라도 ③에서 권한의 위임은 일부 위임만 가능하다는 쉬운 지문이어서 정답을 맞힐 수 있음 * 「2024 객관식 행정사 행정법」, 박이준, p.527

46번 [지방의회의 권한] ☞ 법령, 정답 ③, 난이도 하
주민투표 회부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는 점은 쉬운 내용임 * 「2024 객관식 행정사 행정법」, 박이준, p.527

정법」, 박이준, p.546

47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 법령, 정답 ⑤, 난이도 하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제11조의2). 설령 이 조문을 몰랐어도 정답을 찾는 데에 어려움이 없음 * 「2024 객관식 행정사 행정법」, 박이준, p.602

48번 [공물] ☞ 판례, 정답 ③, 난이도 하

자주 출제되었던 사항임. ③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요건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 정답을 맞힐 수 있음 * 「2024 객관식 행정사 행정법」, 박이준, p.612

49번 [변상금] ☞ 법령, 정답 ⑤, 난이도 하

변상금이 아닌 다른 지문을 선택할 수가 없는 문제임 * 「2024 객관식 행정사 행정법」, 박이준, p.616

50번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 판례, 정답 ④, 난이도 하

수용절차의 줄거리를 매번 강조해왔음.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가운데 이의재결이 행정심판의 재결임 * 「2024 행정사 행정법」, 박이준, p.494